

어업: 역사와 문화

산이 많고 경작에 적합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구로시오 해류상의 섬인 야쿠시마 섬은 옛날부터 해산물에 의지하여 생존해왔습니다. 바다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일은 전통 예능과 칠복신(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일본에서 숭상받고 있는 일곱 신) 중의 하나인 에비스에 대한 신앙으로 나타나 항상 섬 생활의 일부가 되어왔습니다.

어업의 진화

야쿠시마 섬 북쪽 해안의 잇소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유적은 기원전 1 만 년부터 300 년의 조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생선뼈와 조개껍데기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섬의 주민들이 몇천 년 동안 풍요로운 고기잡이를 해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6 세기 무렵에 주로 잡힌 물고기는 날치와 가다랑어이며, 말린 날치는 에도 막부와 사쓰마번(현재의 가고시마현)의 영주에게 진상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19 세기 후반까지 야쿠시마 섬은 평균 1,800kg 의 가쓰오부시(가다랑어의 살을 훈연하여 건조시킨 식품. 국물을 내는 데 널리 쓰인다)를 생산했으며, 또한 매년 약 400 만 마리의 날치 어획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슈의 사쓰마 반도에서 오는 어선이 야쿠시마 근해의 어장을 남쪽부터 침해하기 시작했고, 물고기를 남획하여 섬의 수역에서 다랑어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 섬 주민들은 대신 고등어잡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1897 년, 야쿠시마 섬의 참가자가 일본 전국박람회(현)에서 사바부시(가쓰오부시의 가다랑어 대신 고등어를 사용한 건어물)로 상을 탄 이래 야쿠시마 섬의 사바부시는 섬의 특산물이 되었습니다. 1920 년대 후반에는 한 공장에서만 연간 약 4,500 톤의 얇게 썬 사바부시 포를 생산했습니다.

에비스

에비스는 풍어의 신으로서 어업의 수호신으로 숭상받고 있습니다. 에비스는 보통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 도미를 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에비스에게 감사를 드리며,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을 때는 풍어를 기원합니다. 이 신의 모습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잇소 어항에는 ‘하마(해변)에비스’로 알려진 작은 두 사당이 서 있습니다. 한 사당은 다공질 바위로 만들어졌으며, 도미를 안은 에비스 상과 머리가 없는 석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당은 경질에 붉은 빛이 도는 돌로 만들어졌으며, 안에는 작은 자연석이 모셔져 있습니다. 도미를 안은 에비스는 가다랑어잡이의 수호신이라고 믿어지며, 한편 자연석 에비스는 날치잡이에 행운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돌은 수중에서 물고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다 바다의 돌을 바다를 향하도록 놓아두면 물고기를 연안으로 끌어들이한다고 오랫동안 믿어져왔습니다.

잇소에 있는 또 하나의 에비스 상은 야쿠스기 삼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마치(마을)에비스’로 알려진 작은 돌을 사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에비스에 장사의 번성을 기원합니다. 매우 귀중한 야쿠스기 삼나무 목재를 사용했다는 것은 에비스에 대한 섬 주민들의 경외감을 나타냅니다.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무기오 항구에서는 한 목조 에비스가 멀리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선명한 색채 때문에 이 에비스는 ‘미남 에비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1 월 10 일에는 이 에비스의 은혜와 가호에 감사하고 또한 바다에서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에비스는 보통 도미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에비스는 가다랑어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에도 시대(1603~1867 년)에 가다랑어잡이가 번성하게 된 뒤 본토에서 에비스 신앙이 전해졌을 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비우오마네키 춤

‘도비우오마네키 (날치를 부른다는 뜻)’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나가타 마을에서 열리는 전통적인 여성의 춤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음력 4 월 8 일(양력으로는 5 월 상순에서 중순)에 사람들이 해변에서 부처님에게 기원한 다음 하구에 있는 에비스 사당을 방문합니다. 여성 출연자들은 날치를 소환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며 잎사귀나 사초로 만든 샷갓, 색으로 물들인 기드림으로 장식한 대나무 장대를 흔들니다. 이 의식과 비슷한 의식은 남쪽의 아마미오시마 섬이나 타이완 부근의 섬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춤의 실연은 나가타에서 날치가 이미 잡히지 않게 된 때에 단절되었으나 최근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서 부활했습니다.